

**전일동향**

전일대비 0.30원 하락한 1,294.2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전일대비 0.30원 하락한 1,294.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295.80원에 개장했다.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 위안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처리하며 보험권에서 등락했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1,29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며 1,294.2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7.1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295.80	1296.10	1292.00	1294.20	1294.40
	엔화	908.83	914.26	905.04	912.61	-
	유로화	1429.40	1439.54	1426.18	1437.2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9	-5.45	-12.37	-24.21
	결제환율(수입)	0.1	-4.48	-10.83	-21.3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연말 달러 약세 지속에...1,29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3.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94.20) 대비 0.30원 상승한 1,29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화 약세 지속에 제한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의 580억 달러 규모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발행금리 하락 및 강한 수요가 확인되자 미국채 2년물 10년물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간밤 달러인덱스는 100.941로 전장대비 0.52% 하락하며 약세 마감했다. 또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선호심리 역시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연말 한산한 장세와 채료 부재 속 달러화 약세 지속에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내 마지막 거래일인 점을 감안 시, 연말 수출업체 네고 등 매도물량이 출회할 경우 환율 하락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290.00 ~ 1300.0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61.4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0원 ↑
	■ 美 다우지수 : 37656.52, +111.19p(+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5.3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5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